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 3:10).

⋮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한 가지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다고 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아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과 생각이 무디어져 있다면, 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친구를 사랑하면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친구라”^{요 15:1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까? 만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다면 나는 의식적으로 그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요 11:41}.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언제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꽃과 나무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일들과 봉사 활동 및 자기 확신 등에 사로잡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자세는 언제나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헌신된 마음을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특별한 때에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통 때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전혀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 3:10)

1. 하나님을 무시하니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참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분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조금 의역하면 뜻이 좀 더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한 가지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다고 해서 그 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분을 존중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당연하고 알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번 주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만일 그 명령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면 의식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친구로 대했다면 그 분은 우리 안에서 직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하셨을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단 듣고 순종하면 점점 더 깊은 영적 교제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듣는 것’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2. 들으려는 자세

우리 영적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통해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기 보다는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일들과 봉사 활동 및 자기 확신 등에 사로잡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묵상하니 참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태도입니다. 의

사소통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난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헌신된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늘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특별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보통 때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또 듣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 ❷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습니다.

묵상 질문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헌신되어 있나요?

묵상례시피 | 사무엘상 15:10-31 + 사무엘상 3:10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까? (11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사울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13-15절, 20-21절)

왜 사울은 그렇게 행동하였습니까? (17, 19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불순종은 무엇과 같은 죄입니까? (23절)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까? (26절)

사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4, 25, 30절)

사울이 그렇게 반응한 까닭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30절)

후회하노니(11절)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나 혹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후회라기보다, 사울에 의해 언약이 파기되고 이젠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19절)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소리’와 짐승들의 ‘소리’를 듣고 범죄 하였다.

순종(22절) (히)쉐모아으 (히)솨마(듣다)가 쓰였다. ‘순종하는 것’에 ‘듣다’는 표현을 사용함.

듣는 것 (히)리하크쉬브 전치사 (히)레와 (히)카솨브(귀를 기울이다)가 결합되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란 의미를 갖는다.

짧은 기도

이른 아침 시간에 침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에 침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헤른후트 성경목상집 289판」